

붉은 노을빛 역사 거리를 걷다

‘무주국가유산야행’ 성료… ‘7야(夜)’ 주제 다채로운 공연·체험·놀이 등 진행

무주국가유산 야행이 지난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무주읍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전통공예테마파크, 전통생활문화체험관 등 무주읍 일원에서 개최됐다.

‘7야(夜)’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야행은 △밤에 비춰보는 국가 유산(야경)을 비롯해 △밤에 걷는 거리(야로), △밤에 듣는 이야기(야사), △밤에 보는 그림(야화), △밤에 감상하는 공연(야설), △밤에 즐기는 장터(야식·야시) 등 7가지 테마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놀이 등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야행의 시작은 13일 무주지역 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알렸으며 무주농악보존회와 국악인 박애리 공연, 국악(별주부전), 국악 앙상(엔디맨탈로그) 등이 이어지며 흥을 돋웠다.

14일에는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무주군민 합창단 공연, 태권도 시범 공연,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유산), 소리꾼 공연(정보관)이 펼쳐졌다.

최북미술관과 김환태문학관에서는 어린이들



무주국가유산 야행 기간동안에 열린 국가무형유산 북청사자놀음.

(사진=무주군청 제공)

을 위한 안국사 학대사의 전설(인형극), 퓨전 국악(장악원악사들), 별문 저글링, 미술공연, 버블쇼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 조선왕조실록 역사관 관람을 비롯해 적상산 컬러링 북, 적상산성 3D 퍼즐 체험, 무주 큐브 만들기, 한풍루 3D 퍼즐, 한풍루 DIY

액자 만들기, 삼베 찌기 재인 및 체험 등이 운영돼 재미를 더했다.

무주군청 차 원터 1층에서는 프리마켓과 야식 부스가 마련돼 ‘무주국가유산야행’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맛있는 원터를 제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공예품전시관 ‘여름의 바람, 공예로 빛나다-청풍시회’

전주문화재단, 8월까지 여름 기획전…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엔 고급 옷칠 주걱 증정 이벤트도 진행

여름의 시원하고 맑은 감성을 담은 공예품 기획전이 공예품전시관에서 열린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의 바람, 공예로 빛나다-청풍시회 [靑風時會]’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여름이 가진 시원하고 맑은 풍경과 색감을 다채로운 작품으로 표현해 관람객들이 계절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전시된 작품은 작가들의 섬세한 손길로 완성

된 유리, 한지, 패브릭 등 여름 소재의 공예품들로, 자연과 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며 특별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날 스쳐 가는 청량한 바람(靑風)과 그 찰나의 계절감이 공예의 빛(時輝)으로 피어나는 순간을 테마로, 계절감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공간 연출(VMD)과 감성 공예품들이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여름의 기쁨을 선사한다.

기획 상품은 여름 감성에 맞춰 유리 공예, 한

지부채, 대나무·패브릭 제품 등 실용적인 여름 공예품으로 구성됐다. 시원한 바람과 물결을 형상화한 공간, 조명, 패브릭, 나뭇잎 등을 활용한 전시 공간은 맑고 청량한 계절의 감성을 한층 더 강조한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전주공예품전시관 판매관에서는 2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고급 옷칠 주걱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광한루원 국악명상 ‘숨 쉬는 정원’ 성료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제1회 국악의 날 및 국악 주간을 기념해 남원 광한루원(명승 제33호)에서 운영한 국악명상 프로그램 ‘숨 쉬는 정원’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숨 쉬는 정원’은 광한루(보물 제281호)에서 진행된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른 아침 7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운영되었다.

자연의 소리와 전통 국악 연주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요가, 심잉볼, 보이스 힐링 등 명상 활

동이 함께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고즈넉한 누각 안에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국악과 명상이 만나는 이색적인 구성은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갔으며, “정신이 맑아지는 시간”, “문화유산과 음악, 자연이 모두 어우러진 잊지 못할 체험”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작년부터 이어온 국악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의 전통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고 있으며, 누구나 일상에서 국악



의 율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12일 큐뮤필름스튜디오와 글로벌대학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주대-큐뮤필름스튜디오 ‘맞손’

글로벌대학 교육과정 공동 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2일 큐뮤필름스튜디오(대표 피터류)와 글로벌대학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에 선정된 전주대학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영화촬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큐뮤필름스튜디오와 글로벌대학 협력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피터류 대표와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 KUMU Global CineTech Program(KGCP)을 공동 개발하고,

J-Film 인큐베이터 사업과 연계해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영화 및 콘텐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전주대가 K-Life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글로벌대학 본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터류 대표는 “큐뮤필름스튜디오의 글로벌 영상 제작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주대가 비전으로 제시한 K-Life Campus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예술회관, 연극 ‘꽃 머느리’ 24일 공연

부안예술회관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연극 ‘꽃 머느리’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연극 ‘꽃 머느리’는 부안예술회관 기획공연으로 극단 까치놀이 고(故) 김창일 작가의 희곡 ‘꽃 머느리’를 무대에 올린 연극이다.

작품은 남해의 작은 섬 ‘홀섬’을 배경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늙은 어머니와 세 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어느 날 외지 여인이 머느리로 들어오며 조용하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다.

반복된 삶 속에서 불러왔던 갈망과 갈등이 외지인의 등장을 계기로 터져 나오고 가족은 점차 균형을 잃는다.

이 연극은 단순한 가족드라마가 아니다.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 안에서 인간의 욕망과 생존 본능, 가족 간의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인물 각각의 현실적인 동기를 따라가며 고립된 삶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놓는지를 보여준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가족과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한편 이번 공연 입장권은 전석 1만원이며 부안군민은 90% 할인돼 1000원이다.

좌석예매는 현장발권 및 티켓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